

#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말하기를 위한 플립러닝 수업 개발 및 적용 효과: 말하기 관련 정서적 요인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심현애<sup>1</sup>, 김경연<sup>2\*</sup>

<sup>1</sup>선문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sup>2</sup>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 The effects of Flipped learning on Korean Language Speaking Skills focused on Foreign College Students

Hyeon-Ae Sim<sup>1</sup>, Kyung Yun Kim<sup>2\*</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Faculty of Liberal Arts, Sunmoon University

<sup>2</sup>Invited Professor,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Kore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외국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수업을 플립러닝으로 설계하여 적용하고, 말하기 관련 정서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알아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신입생 대상 '창의적 말하기' 과목을 플립러닝으로 재설계하여 한 학기 동안 운영하였다. 말하기 관련 정서 요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6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말하기 효능감, 말하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신체 증상, 그리고 청중 의식에 대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하고 그 차이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플립러닝 후 학생들의 말하기 효능감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플립러닝이 외국인 학부생의 한국어 말하기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학생들은 한국어로 말하기 연습을 하고, 한국인 동료와 같이 학습함으로써 한국어 말하기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IT 융합 교육,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 플립러닝, 수업 개발

Abstract This study redesigned the Korean speaking classes to foreign undergraduate students as flipped learning classes and verified their effect on speaking-related emotional variables. In addition, international students' perceptions of what experiences are needed to improve speaking efficacy in Korean were examined. For this purpose, the 'Creative speaking' subject for freshmen was redesigned to flipped learning class and operated for one semester. To analyze the effect of speech-related emotions, a paired t-test was conducted on 26 foreign students' pre-post scores of speech efficacy and anxiety. Also awareness of experiences needed to improve speech efficacy was surveyed and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As the result, the speaking efficacy of students after flipped-learning has been significantly improved. This means that flipped learning classes for the Korean speaking are effective for the positive emotions of foreign students speaking Korean. In addition, international students perceived that Korean speaking efficacy can be improved by practicing speaking in Korean, learning with Korean colleagues.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discussions and sugges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 Information Technology Convergence Education, Foreign Undergraduate Students, Efficacy of Speaking Korean, Flipped Learning, Instructional Development

\*Corresponding Author : Kyung Yun Kim(kyungkim68@korea.ac.kr)

Received August 6, 2020

Revised September 7,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 1. 서론

최근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교육통계서비스(KESS)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체 84,891명(학위과정 53,626명)이던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수가 5년 뒤인 2019년에 160,165명(학위과정 100,215명)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1,2]. 이에 따라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연구들은 특히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감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5].

의사소통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 중 외국인 유학생의 초기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 활동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말하기 수행에는 인지적 요인인 해당 언어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효능감, 불안, 감정과 같은 정서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말하기 효능감과 불안은 말하기 수행과 관련하여 관심을 받고 있는 정서적 요인이며, 이를 측정하는 도구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6-9]. 다만, 한국어 교육에서는 성취도와 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면서 말하기를 포함한 연구는 있지만[10-12], 말하기와 관련된 정서적 요인에 영향을 주기 위한 교육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 교수법 개선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수업을 혼용하는 블렌디드 러닝의 일종인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 자료로 선행학습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 확보된 수업시간을 학생간 상호작용과 문제해결 활동에 사용함으로써[13], 한국어에 대한 지식과 기능의 활용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된 유학생의 사회적 고립감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사례로는 플립러닝을 적용한 한국어 수업 모형 개발[14], 어휘학습의 방법 모색[15], 문법교육에 적용 방안[16], 한국어 문화교육 학습 모듈 개발[17], 중국 대학의 한국어 회화 수업에 적용가능성 모색[18] 등이 다수가 있다. 다만, 이들 연구는 한국어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한 학습모듈 정도를 개발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즉, 플립러닝을 한 학기 이상 적용할 수 있는 개발 사례와 그것을 실제 적용하여 수업을 운영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적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을 개발하고, 수업 운영 효과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1.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말하기 교과목을 플립러닝 수업으로 개발한다.
2. 플립러닝 수업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말하기 관련 정서적 요인(말하기 효능감, 부정적 인식과 신체 증상, 청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3.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유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말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에 의하면 말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말하기 효능감과 말하기 불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6-9]. 우선, 말하기 효능감은 말하기 상황에서 화자가 스스로 느끼는 자신감으로, 말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이는 말하기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하기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능 및 전략 등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조절하는데, 자신의 수행을 동기화시키는 데, 그리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19].

둘째, 말하기 불안은 말하기에 대한 일종의 부정적 정서를 의미한다. 말하기 불안은 다시 부정적 인식과 청중 인식으로 구분된다. 말하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말하기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기 어렵고, 자신은 말하는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기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청중 인식은 청중의 특성을 분석하며 화자가 해당 담화의 '예상 청중'을 창조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8,20]. 이는 말하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지나친 의식은 목소리 떨림, 식은땀, 숨가쁨과 같이 말하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즉, 불안감이 낮은 사람은 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여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보지만,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신체적 증상이 과도하여 말하기 수행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유학생들의 말하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 및 대학 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표현을 충분히 연습

하고, 말하기 불안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수업 중 팀 활동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2.2 플립러닝과 한국어 교육

초기 플립러닝에 대한 연구는 온라인 사전학습 콘텐츠를 설계하는 것을 강조한 반면, 최근에는 온라인 사전학습 콘텐츠를 수강한 후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생 중심 팀 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전체 수업을 재설계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플립러닝 수업은 주요 3단계(Pre-In-Post Class)로 구분하여 설계하는데, 최정빈[13]은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설계해야 할 7가지 수업운영 요소를 도출하여 PARTNER 모형으로 제시하였다(Fig. 1). 이 모형에서는 특히 수업 전 선행학습 단계(Pre class learning)가 강조되는 만큼, 선행학습으로 인하여 절약된 강의시간을 활용하여 수업 시간(In class)에는 배운 내용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 팀 활동(team activity)을 반드시 편성할 것, 그리고 가능하면 오프라인 수업 후(Post class)에는 학생들에게 과제 등의 추수 활동을 제시하지 않고 다음 시간을 위한 사전학습에 집중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Fig. 1. PARTNER – Model of Flipped Learning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도 플립러닝을 적용하여 교수법 개선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플립러닝 연구는 초기에 주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수업모형이나 수업계획서를 제시하는 연구에서 비롯하여[14-18], 이후 한국어 어휘[21], 한국어 문법[22], 한국어 말하기[23], 한국어 글쓰기[24,25]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의 수업에 적용되고 있다. 다만, 수업에 적용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다음의 점에서 한계가 있다. 먼저 한 차시의 수업에 적용한 사례만 제시하거나[15,16,23]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26]에 그치는 등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한국어 교육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최근 급증하는 대학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적다는 점도 한계이다.

따라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의 장기간 수업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소재 S대학교에서 2018학년도 2학기 <창의적 말하기> 과목을 수강한 외국인 유학생 30명이다(Table 1 참조). 이 중 사전검사에 응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한 26명의 데이터가 사전-사후 차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한국어 말하기 자신감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험에 대해 조사하는 설문에 응답한 15명의 응답을 추가적인 내용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 Study subject

Nationality	Num. of people	Male	Female
Vietnam	17	6	11
Indonesia	5	3	2
China	5	4	1
Japan	2	-	2
Germany	1	1	-
Total	30	14	16

### 3.2 플립러닝 수업 및 실험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최정빈[23]의 PARTNER 모형을 활용하여 플립러닝 수업을 개발하였다. 첫째, Pre-Class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① 사전학습용 온라인 강의동영상을 개발하였다. 둘째, In-Class 활동자료로 ② 사전학습 확인용 퀴즈(개별, 팀별), ③ 교수자 피드백 및 학생 활동을 위한 안내 자료, ④ 학생(팀) 활동 수행 자료를 개발하였다. 셋째, Post-Class 활동을 위한 부가적인 과제는 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차시를 위한 사전 학습을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와 같이 ①~④로 구성된 과정이 하나의 학습모듈을 구성하며, 전체 15주차 중에서 10주차에 걸쳐 진행할 수 있도록 10개의 학습모듈을 개발하여 한 학기 동안 수업에 적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또다른 목적인 플립러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연구를 설계하였다. 학기 초 2주차에 말하기 관련 변인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을 운영한 후 학기말 14주차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 3.3 연구 도구

한국어 말하기와 관련된 정서적 요인을 검사하는 도구로 한금영[8]의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는 말하기 효능감 10 문항, 말하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신체 증상 6 문항, 청중 인식 4 문항의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효능감은 말하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부정적 인식 및 신체 증상 그리고 청중 인식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한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음(1 점)'에서 '매우 동의함(5 점)'까지 5 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검사도구의 마지막 문항으로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적는 개방형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학생들이 작성한 주관식 응답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국문과 영문의 두 가지 유형으로 검사도구를 제공하였고, 학생들은 선호하는 언어로 된 도구를 선택하여 응답하였다. 검사도구의 구성, 문항 수, 질문 내용, 요인별 신뢰도는 Table 2 와 같다.

Table 2. Composition of research tools

Research Variables(Num. of Items)	Question contents (When speaking in Korean, I ...)	Reliability (α)	
		Pre.	Post
Speaking Efficacy(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lieve that I can speak well</li> <li>· Tension can be controlled</li> <li>· Can speak as planned</li> <li>· Speaking plan considering the other person</li> <li>· Speech plan according to purpose</li> <li>· Speak after understanding</li> <li>· Using verbal expressions</li> <li>· Effective nonverbal expression</li> <li>· Speak specifically</li> <li>· Adjustment considering the reaction of the partner</li> </ul>	.808	.773
Negative perception and symptoms(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 aware of mistakes while speaking</li> <li>· Heartbeat or cold sweat</li> <li>· Voice trembling, shortness of breath, and tightness</li> <li>· Can't rectify mistakes and panic</li> <li>· Nervous and unable to answer questions</li> <li>· Can't remember what to say</li> </ul>	.484	.784
Audience consciousness(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 aware of the other person when speaking Korean</li> <li>· Difficulty speaking with 2-3 people</li> <li>· Difficult to speak one-on-one</li> <li>· Difficult to speak in small groups</li> </ul>	.686	.818

What do you need to gain confidence in speaking Korean?(1)

### 3.4 분석 방법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이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와 관련된 정서적 요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

계프로그램인 SPSS ver 25를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데 필요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학생들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여 의미있는 경험 항목들을 도출하고, 항목별 빈도를 집계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플립러닝 수업의 개발 결과

본 연구의 대상 교과목은 S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중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창의적 말하기>이다. 이 과목에서는 말하기 장르와 주제에 따라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10장으로 구성된 교재를 활용한다. 교재는 장별로 설정한 장르나 주제에 대해 '도입(동기유발) → 어휘 → 주요 표현 → 연습 → (응용)활동'으로 전개된다. 수강생이 외국인 유학생이면서 신입생이고 첫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장의 본문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 교재에 제시된 어휘를 사전에 숙지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교재에 나오는 어휘 설명, 연습 문제 풀이, 그리고 주제별 핵심강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학습 동영상 제작하였고, 플립러닝을 적용한 주차별 수업 모듈을 10개로 구성하여 설계하였다. Table 3.

플립러닝 모듈별로 Pre-Class, In-Class, Post-Class 활동을 구성하였다. Pre-Class 활동은 각 장의 어휘와 핵심내용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 강의자료를 공부해 오는 것이다. In-Class 활동은 사전학습 확인 테스트, 교수자 피드백, 학습자 활동으로 구성된다.

첫째, 사전학습 확인이다. 모듈 6(M6)까지는 어휘에 대한 10개 이상의 선다형 문항으로 시험지를 구성하여 개별과 팀 단위로 퀴즈를 실시하였다(O1). 모듈 7(M7)부터는 단계별로 최종 주제 발표 원고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전학습은 온라인 출석으로 확인하고 수업시간 초기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O2). 둘째, 교수자 피드백은 사전학습(퀴즈 혹은 제출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해당 모듈(장)별 활동을 위해 필요한 핵심내용에 대해 교수자가 요약수업 등으로 진행한 다음, 다음에 진행할 학습자 활동의 진행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셋째, 수업 중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학생 중심 활동이 진행된다. 학생 중심 활동은 학습한 내용을 응용하여 문제해결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개별 활동과 팀 활동을 연동하여 진행된다. 학습자(팀) 중심의 연습을 수행함으

Table 3. Learning modules' design for flipped class

WK	Num. of learning module	Pre-Class (On-line Learning)	In-Class			Post-Class (Preparing for next class)
			Pre-study confirmation	Feedback, key lecture, guide for students' activity	Students' problem solving activities that apply what they learned	
1	-	-	-	OT on the subject and flipped 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troducing yourself with pictures</li> <li>Student needs survey, MBTI test</li> </ul>	Lec 1 pre-class learning material
2	M1	Lec 1 pre-study	O1	Lec 1. Introducing yoursel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arious introduction expressions, workbook activities</li> <li>Self introduction (1 min) manuscript preparation, Recording, uploading</li> </ul>	Lec 2 pre-class learning material
3	M2	Lec 2 pre-study	O1	Lec 2. University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ter-student feedback on self-introduction video</li> <li>Roleplay script writing, acting, recording, uploading</li> </ul>	Lec 3 pre-class learning material
4	M3	Lec 3 pre-study	O1	Lec 3. Writing a speech outl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etermining the presentation topic for each team and making an outline</li> <li>Draft presentation</li> </ul>	Lec 4 pre-class learning material
5	M4	Lec 4 pre-study	O1	Lec 4. Preparing 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urvey planning, implementation, analysis, and upload</li> <li>Video letter from the university campus</li> </ul>	Lec 5 pre-class learning material
6	M5	Lec 5 pre-study	O1	Lec 5. Effective convers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ntextual play (consign, ask, compliment): script writing, practice, acting, Recording, uploading</li> </ul>	Midterm exam preparation
7	-	-	-	Midterm exam		-
8	-	-	-	Feedback for midterm ex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reate Excel graph and survey PPT</li> <li>Creating a subject presentation PPT</li> </ul>	Lec 6 pre-class learning material
9	M6	Lec 6 pre-study	O1	Lec 6. Speaking watching mov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rite, practice, &amp; present a speaking outline about watching a movie</li> <li>Submit draft manuscript for final presentation</li> </ul>	Lec 7 pre-class learning material
10	M7	Lec 7 pre-study	O2	Lec 7. Survey and 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esenting the team survey results</li> <li>Research and upload "Insa" terms of young people</li> <li>Submit second manuscript for final presentation</li> </ul>	Lec 8 pre-class learning material
11	M8	Lec 8 pre-study	O2	Lec 8. To arg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rgue for the topic between teams</li> <li>Peer evaluation after the discussion</li> <li>Submit draft PPT for final presentation</li> </ul>	Lec 9 pre-class learning material
12	M9	Lec 9 pre-study	O2	Lec 9. To re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eaking articles, story, experience to others</li> </ul>	Lec 10 pre-class learning material
13	M10	Lec 10 pre-study	O2	Lec 10. To discu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eam discussion: Strategies for good topic present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ubmit final speech outline, manuscript, and PPT file</li> </ul>
14-15	-	-	-	Final topic 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inal topic presentation (3min)</li> <li>Peer evaluation, self-evaluation</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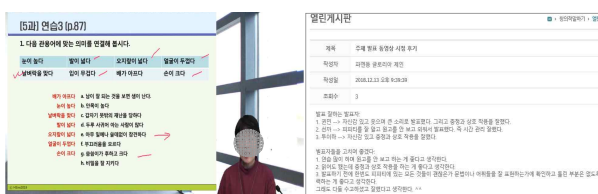


Fig. 2. Learning material and class activities

로써 결과물을 생성하게 된다. 말하기 수업임을 고려하여, 학습자 연습의 결과물은 장르와 주제별 말하기 장면을 최대한 간편하게 촬영하고 LMS에 촬영한 동영상상을 업로드하게 하며, 동료 학생들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게 된다. 수업이 끝나면 LMS에 다음 차시 활동에 필요한 동영상 학습 자료가 게시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Post-Class 활동은 다음 차시의 Pre-Class 활동으로 사전학습 자료를 공부하게 되는데(모듈 6까지), 필요한 경

우 기말 최종 발표 준비에 필요한 단계별 활동 결과물을 제출하게 된다(모듈7부터). Fig. 2는 사전학습용 강의 동영상(왼쪽)과 활동 결과물에 대한 학습자간 온라인 피드백(오른쪽) 장면의 예시이다.

#### 4.2 말하기 요인에 대한 플립러닝의 효과

플립러닝 수업 적용 전후에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말하기 관련 정서적 요인, 즉 말하기 효능감, 부정적 인식과 신체 증상, 청중 의식에 대한 검사한 결과를 분석한 기술통계는 Fig. 3과 같다. 세 가지 변인 모두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에 변화가 있었는데, 긍정적 정서인 말하기 효능감은 높아진 반면, 부정적 정서인 말하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신체 증상, 그리고 청중 의식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즉 말하기에 대한 효능감은 더 높아진 반면 부정적 요소는 감소하여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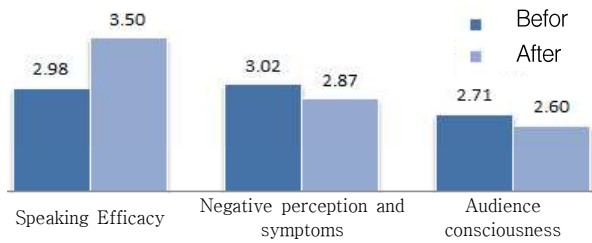


Fig. 3. Pre-post average scores by research variable

이 변화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말하기 효능감(사전 2.98점, 사후 3.50점)은 약 0.52점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5.148, p<.001$ ). 반면 약 0.15점 감소한 부정적 인식 및 신체 증상(사전 3.02점, 사후 2.87점), 그리고 약 0.11점 감소한 청중 의식(사전 2.71점, 사후 2.60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각각  $t=1.258, p>.05$ ;  $t=0.986, p>.05$ ). 이는 플립러닝 수업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말하기에 대한 긍정적 정서인 말하기 효능감 향상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나, 한국어 말하기 관련 부정적 정서(인식 및 신체 증상, 청중의식)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Table 4. Results of pre-post difference analysis

Variables (n=26)	M	SD	df	t	
Speaking Efficacy	pre	2.98	.44	25	-5.148***
	post	3.50	.42		
Negative perception and symptoms	pre	3.02	.47	25	1.258
	post	2.87	.63		
Audience consciousness	pre	2.71	.62	25	.986
	post	2.60	.73		

\*\*\*  $p<.001$ 

#### 4.3 한국어 말하기 자신감을 위해 필요한 경험

한국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 15명이 응답한 내용을 코딩하여 총 17가지의 항목을 도출하였다(Fig. 4). 이를 유사한 내용끼리 분류한 결과를 보면, ‘한국어로 말하기 연습(7건, 41%)’과 ‘한국 친구와 학습(6건, 35%)’이 지배적이었다.

첫째, 가장 많은 ‘한국어로 말하기 연습’과 관련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많이 연습해야 한국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실수를 하더라도 계속 말해야 하며 실수를 통해 한국어를 더

잘 말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즉 한국어를 많이 연습함으로써 한국어를 잘 말할 수 있고, 한국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둘째,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인 학습자와 같이 학습한 경험이 한국어 말하기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 동료와는 달리 한국인들과 한국어로 대화할 때 실수에 대한 불안이 높기 때문에 한국인 동료와 말하기 연습을 통해 불안을 극복하고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타 의견으로 ‘어휘 학습’, ‘한국 미디어 활용’, ‘말하기 전 계획하기’, ‘교과목 수강’ 등이 1건씩 있었다.



Fig. 4. Experience required for speaking confidence

## 5. 결론

본 연구는 학부생 중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적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을 개발하고, 한 학기 동안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한국어 말하기와 관련된 정서적 요인에 대한 변화와 유의미성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및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말하기 교과목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운영 요소를 포함하여 10개의 학습 모듈, 즉 10주차 분량의 수업을 개발하였다. Pre-Class는 각 주제별 필수 어휘 동영상 학습 활동, In-Class는 사전학습 확인 테스트, 교수자 피드백과 활동 안내, 학습자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학습자 활동에서는 학습자들이 개별 및 팀 단위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주제별 말하기 장면을 촬영하여 LMS에 업로드하여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하였다. Post-Class에서는 다음 차시의 Pre-Class 활동으로 사전학습 자료를 공부하였다.

본 연구는 플립러닝의 단계에 따라 사전 동영상 학습, 사전학습 확인, 교수자의 피드백, 학습자 활동, 그리고 사후학습 등으로 구성하였다는 점과, 한국어 어휘와 문법



등의 관련된 지식은 사전에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습을 수업 중 활동으로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사례 연구[14-18]와 유사하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전의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하나는 적용 기간 면에서 한 학기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촬영하고 LMS에 올려 피드백 하는 등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동기와 참여를 높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플립러닝을 적용한 말하기 수업 이후 유학생의 말하기와 관련된 정서적 요인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즉, 말하기 효능감은 높아진 반면 부정적 요인은 감소하였는데, 특히 말하기 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특정 과제에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자아 효능감은 영역 특수적이고[27], 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Bandura[28]는 성공의 경험, 시범보이기, 격려 등이 자아 효능감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한다. 플립러닝을 통해 학습자들이 한국어 말하기 과제와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범을 보이고 격려하면서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말하기에 대한 자신의 효능감을 높여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말하기 관련 부정적 정서 요인(부정적 인식 및 신체 증상, 청중 의식)의 감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는 효능감과 달리 부정적 정서가 단시간에 쉽게 변화가 되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일 수 있다. 말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 목소리 떨림과 숨기쁨 같은 신체 증상, 그리고 청중에 대한 과도한 의식은 분명 말하기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그런데 이런 요인도 과제 수행에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시험에 대한 적정 수준의 불안은 집중의 필요성과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고, 성공과 실패를 어디에 귀인하느냐에 따라 학습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29]. 이 점을 고려하여 플립러닝을 적용한 말하기 수업 설계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말하기의 성공을 학습자 자신의 노력에 귀인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보다 정교한 교수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한국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고, 한국 친구와 같이 학습함으로써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학생들의 이런 인식은 Bandura[28]가 성공의 경험, 시범보이기, 격려가 자아 효능감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한 것을 학생들의 인식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의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플립러닝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검증은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이에 대한 보완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어 교육의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플립러닝 수업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때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대학 생활 적응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17). 2017 Educational Statistics : Key Indicators. Retrieved July 10 from <https://kess.chedi.re.kr/publ/view?survSeq=2017&publSeq=59&menuSeq=0&itemCode=02&language=>
- [2] 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19). 2019 Educational Statistics : Key Indicators. Retrieved July 10 from <https://kess.chedi.re.kr/publ/view?survSeq=2019&publSeq=59&menuSeq=0&itemCode=02&language=>.
- [3] I. S. Kim & K. M. Choi. (2017). A Fusion Program of Tea Ceremony and Applications to Reduce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2), 445-450, DOI : 10.15207/JKCS.2017.8.12.445
- [4] S. H. Park. (2019). A Convergence Study on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oreign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5), 351-357.
- [5] K. O. Jang. (2018). Convergence Research on Academic Adjustment of Foreign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1), 169-177.
- [6] Y. R. Cho, M. K. Lee, & S. H. Park. (1999). A Study on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Speech Anxiety Scale.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8(2), 165-178.
- [7] Y. J. Seo. (2019). A study on the speaking self-efficacy constructs of highschool students. *Korean Language Education*, 135, 185-213.
- [8] K. Y. Han. (2016). A Study of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ale on Speech Anxiety.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9] K. Y. Han & S. K. Choi. (2019). A study on validation of inspection tool for high school students' speaking anxiety using Rasch rating model. *Journal of Choen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60, 43-73.

- [10] Y. H. Kim. (2017). A study on correlation among learning anxiety, learning strategy, and evaluation results in Korean speaking section. *HAN-GEUL*, 318, 221-242.
- [11] H. J. Park. (2018). Writing anxiety in L1 and L2 of Korean for academic purpose learners and its correlation with their academic performance : With a focus on intermediate level learners.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83(0), 142-176.
- [12] S. K. Oh & J. H. Kim. (2019).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learning anxiety and achievement test of Korean learners.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30(3), 83-103.
- [13] J. B. Choi. (2016).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guide for problem-solving subjects : Focus on TIPS-FL (Flipped Learning) subject*. Innovation Institution, Sunmoon University.
- [14] J. W. Park. (2014). A Study of Flipped Classroom Model for Large-scale Korean Language Teaching Method. *Bilingual Research*, 57, 75-102.
- [15] K. H. Kim. (2015). Korean Lexical Learning Possibility based on Flipped Learning : Focused on "Collocation". *Grammar Education*, 24, 29-56
- [16] K. H. Kim. (2016). Grammar Educational Application of Flipped Learning : Focused on Model Development. *Grammar Education*, 26, 157-186.
- [17] Y. S. Hong. (2015). Korean Culture Education Applying "Flipped Learning". *Humanities Research*, 20, 85-110.
- [18] X. Tong. (2017).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Flipped Learning in Oral Korean Teaching in China : Based on the Current Oral Korean Teaching in China's Higher Institutions. *Ratio et Oratio*, 10(1), 165-193.
- [19] Y. J. Seo & E. J. Jeon. (2010). A study on speech anxiety of high school students : Focus on correlation between oral communication component and speech anxiety. *Journal of Cheon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42, 209-242.
- [20] Y. I. Choi (2013). Aspects on Audience Consideration of High School Student Speakers' persuasive speaking: centered on male high school students' data.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47, 387-421.
- [21] D. Y. Bai. (2015). A case study of the Flipped Learning classes at the university. *Urimal*, 41, 179-202.
- [22] S. H. Lee. (2015). Teaching of Korean Grammar Using Flipped Learning -Focus on the Korean grammar class as a liberal arts subject. *The language and Culture*, 11(2), 221-262.
- [23] K. Lee & Y. Yun. (2017). A study on flipped-learning-based grammar teaching method to improve Korean speaking abilit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4), 333-361.
- [24] S. S. Kim. (2017). A Study on Using Flipped Learning in Korean Language Classroom.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1), 529-550.
- [25] G. A. Le.e (2017). A Study on a Writing Instruction Model Using Flipped Learning for Foreign Students.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72, 61-95.
- [26] Y. H. Woo. (2017). A study on flipped learning-based Korean elementary grammar teaching model development and its effect : Centered on Korean leaners in university of China mainland.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46, 53-83.
- [27] P. L. Smith & N. A. Fouad. (1999). Subject-matter specificity of self-efficacy, outcome expectancies, interests, and goals: Implications for the social-cognitive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4), 461-471.
- [28] A. Bandur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on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29] K. H. Lim. & W. Lim. (2014). *Educational Psychology for School Learning Effect*. Seoul : Hakjisa.

#### 심 현 애(Hyeon-Ae Sim)

[상학]



- 2002년 12월 : University of Sydney (Master of education)
- 2008년 8월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어 교육, 교수-학습

· E-Mail : simhyonae@sunmoon.ac.kr

#### 김 경 연(Kyung Yun Kim)

[상학]



- 2000년 2월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ED.M)
- 2007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07년 3월 ~ 2017년 4월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2017년 5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 관심분야 : 교수-학습, 한국어 교육, 교육심리

· E-Mail : kyungkim68@korea.ac.kr